



미 증시, 지표 부진에도 실적 기대감 등으로 소폭 상승

미국 증시 리뷰

22일(목) 미국 3대 증시는 주간 실업지표 및 주택지표 부진, 경기 민감주 중심의 차익 실현 물량 출회에도, ECB의 완화기조 재확인, 양호한 2분기 실적 시즌 진행 소식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다우 +0.1%, S&P500 +0.2%, 나스닥 +0.4%). 업종별로는 기술(+0.7%), 헬스케어(+0.7%), 경기소비재(-0.6%) 등이 강세, 에너지(-1.1%), 금융(-1.0%), 부동산(-0.7%) 등이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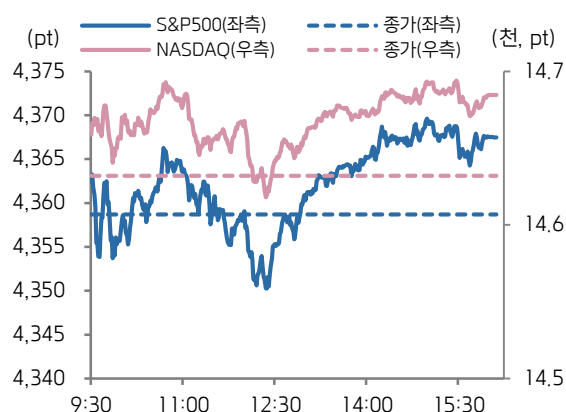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41.9 만건으로 전주(36.8 만건) 및 예상치(35.0 만건)에 비해 부진. 6월 기준주택판매는 +1.4%(MoM)로 전월(-1.2%) 감소세에서 증가 전환했으나, 예상치(+2.2%)는 하회.

ECB는 7월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Refi 0.0%) 동결 및 판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EPP, 1.85 조유로, ~22년 3월)을 유지하기로 결정. 최근에 변경한 2% 인플레이션 목표치(기존에는 2% 아래)에 따라 금리를 현수준 혹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힘. 라가르드 ECB 총재는 백신 접종으로 유로존 회복세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재개 효과로 인해 3분기 성장률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 델타 변이 확산은 이미 6월 전망에 반영했으며, 너무 조기에 긴축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

미국 증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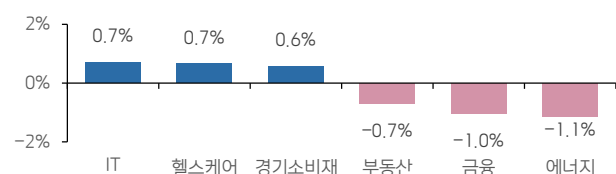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 추가실업급여프로그램이 종료됐음에도, 지난주 주간실업자수가 늘어난 것은 델타 변이 확산이 일정부분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 ECB 총재가 델타 변이를 6월 전망에 반영했다고 밝힌 것처럼, 이제는 고 인플레이션 이외에도 전염병 재확산이 연준의 경기 판단에 영향을 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하는 시기. 이는 연준의 긴축 스케줄에도 가변성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차주 예정된 7월 FOMC(27~28일)는 6월 FOMC에 비해서 시장 영향력은 크지 않겠으나, 성명서 상 경기와 관련된 문구 변화 여부에 주목할 필요. 한편, 현재까지 2분기 실적을 발표한 S&P500 기업들의 약 88%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시장에 안도감을 제공. 다만, 향후에도 지속적인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를 소화 해내는 과정에서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S&P500, NASDAQ 일종 차트(7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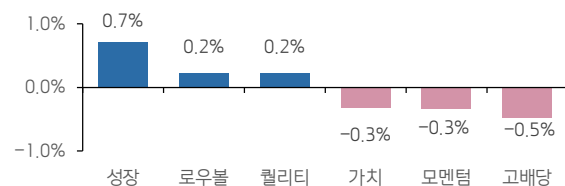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7월 22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7월 22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83%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19%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12%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51.13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외국인 현선물 동반 순매수 지속 여부
2. 미국 인텔 시간외 주가 부진으로 인한 국내 IT 업종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
3. 전거래일 단기 급등세를 보인 경기 민감주들의 차익실현 물량 출회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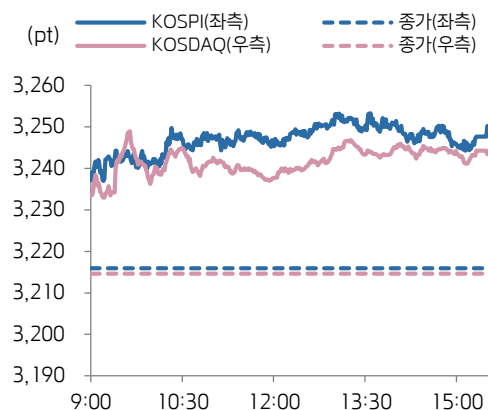
한국 증시 리뷰

22 일(목) 코스피는 델타 변이 확산에도, 선진국들의 경제 정상화 진행, 미국 반도체주 강세, 2 분기 실적 시즌 기대감에 힘입어 반도체 등 전기전자 업종 및 여행, 항공 등 경제 재개 관련 업종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1%대 상승 마감(코스피 +1.1%, 코스닥 +0.8%). 업종별로 철강금속(+3.3%), 보험(+2.2%), 금융(+1.7%) 등이 강세. 의료정밀(-3.4%), 기계(-0.7%), 의약품(-0.6%) 등이 약세. 수급별로는 개인이 8,800 억원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00 억원, 8,150 억원 동반 순매수를 기록.

한국 증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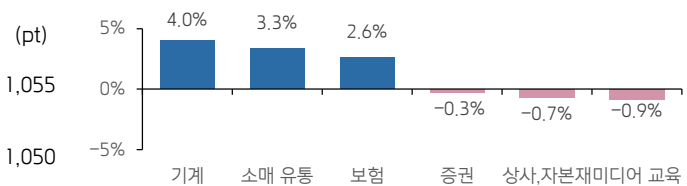
한국 증시는 위험자산 선호심리 지속에도, 2 분기 실적 시즌 경계감이 지수 상단을 제한시킬 것으로 예상. 전거래일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동반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에 일조했으나, 현재 원/달러 환율 레벨, 매크로 불확실성을 감안 시 본격적인 외국인의 수급 개선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국내에서도 소재, 산업재, 금융 등 경기 민감주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진행. 미국과 유사하게, 2 분기 실적보다는 추후 업황 전망의 변화가 주가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가하고 있는 모습. 2 분기 수치보다는 기업들의 컨퍼런스콜에 주목을 해야하는 시점. 전일 미국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인텔(-2.4%)이 2 분기 호실적에도, 향후 업황 및 실적 개선 전망이 시장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으로 시간외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시, 금일 IT 업종의 주가 변동성 확대를 유의할 필요.

KOSPI & KOSDAQ 일종 차트(7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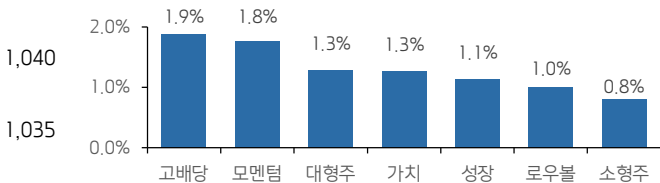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7월 22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7월 22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